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1)

위인이 새시대를 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복잡다단한 정치정세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며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은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온 겨레가 한강토우에서 행복을 누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져온 격동의 10년이었다.

대결의 동로대를 녹이는 불빛

이 땅은 대결과 분열로 얼어붙은 동로대였다. 그 격사의 동로대를 녹여 주시려 생애의 전기간 그토록 마음쓰시며 로고에 로고를 거듭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대결과 분열의 얼음장을 녹이는 조국통일의 기운들이 이 땅을 진감하여 지난 시기 겨레에게 실로 크나큰 기쁨이 안겨졌으며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 의지는 세계에 과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을 더는 미루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로 여기시고 지난 10년간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략들을 환히 밝혀 주시으로써 분열의 동로대에 파사로운 불빛을 뿌려 주시었다. 그 불빛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들에도 깃들여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기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는 자주적인 통일의지가 천명된 신년사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들의 구절구절에 넘쳐흐르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두철한 민족자주와 민족대결의 사상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 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평양하늘을 우러러보며 웃음을 머미고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 그이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정으로 경경해온 우리 겨레는 그때마다 흥분과 격정을 터치었고 온 한해 신심과 락관에 넘쳐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며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6(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뜻깊은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셋이 되는 해인 2017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특히 2018년 신년사를 통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북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큰 제의》, 《새해에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 《애상을 뛰어넘는 과격적인 조치》 등으로 격찬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해나섰다. 또 한 남조선의 정계와 각계 인사들속에서도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며서 깜짝 놀랐다》, 《상당히 과격적인 조치를 담고있다》, 《대단히 환영할만한 제안이고 그에 상응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오래동안 얻어보지 못한 북남관계 해빙의 물결을 뒀다》, 《남북관계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남북평화의 시기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등의 글들이 차근차근다. 이뿐이 아니었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렘치치》는 2018년초순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대해 격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천명하신 그이의 신년사가 발표되자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며 미국잡지 《네이썬》도 북조선령도자에게는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야말로 온 겨레를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으로 부른 력사적인 호소였고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근차근 애국애족의 결정체였으며 대결의 동로대를 녹여주는 불빛이었다. 종계 흘러가던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합의들을 어긋나 하나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므로 하여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9월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었다. 그러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키시었다.

정녕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와 열렬한 민족애, 탁월한 지략과 넓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히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헌신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전해지며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또 한분의 위인, 조국통일의 구성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진행되는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는 겨레의 마음은 뜨거웠다. 온 김일성광장이, 아니 온 삼천리가 삼시에 밝아졌다. 젊으신 출중한 령도자를 우러르는 겨레의 마음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었다.

그이는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갈수록 없는 우리의 태양.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던 바로 그날의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 하시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굳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시던 그날의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통일은 그자체가 민족적단합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정녕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묶어세우실 투철한 통일애국의지와 바다와 같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원수님이시었다.

김일성광장에 제령제령 울려 퍼지던 그날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겨레는 우리 인민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며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을 머리에 떠올렸다.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험천만한 판문점에도 나오시고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도 마련해 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생각하였다.

민족의 어머니를 잃고 목놓아울던 우리 겨레에게 통일애국의 굳센 의지를 천명하시고 통일신심과 락관을 불러일으켜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으면서 겨레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또 한분의 탁월한 위인,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중에서

조국소식

개건된 평안북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진행

평안북도산림과학연구소가 개건되어 준공하였다.

산림과학연구소가 개건됨으로써 도안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9월에 진행된 도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에는 김태성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 도산림관리국, 도산림과학연구소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조약은 일제의 강도적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울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법의 협정문서였다. 이 조약 아닌 《조약》과 그 후에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무참히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반민란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던 삼천리강토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고 있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울사5조약》의 날조로 하루아침에 국권을 외세에게 강탈당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운에 떨어던가.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울사5조약》의 날조는 가장 포악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은 잔대미문의 국권강탈범죄였다. 조약은 일제의 강도적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울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초보적인 조약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법의 협정문서였다. 이 조약 아닌 《조약》과 그 후에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무참히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타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끌고 가 비참한 죽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수십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치사한 잔인한 침략자를 알지 못한다.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는 미국의 적극적인 묵인비호에 감행되었다. 지난해 남조선의 《제외동포신문》이 《울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제의 죄행과 함께 이를 묵인비호해나선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폭로한 《뉴욕 타임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당시 일제의 주권침탈에 항의하는 고종황제의 립장을 외면한 미국은 오히려 《울사5조약》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의 외교업무를 일본이 맡아하게 되었다는 일제의 주장을 비호두둔해나서면서 서울에 있던 미국공사관을 일본 도포로 옮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882년 조선봉건정부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조약에는 어느 나라도 부당하게 조선문제에 간섭하는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이 조약을 리행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울사5조약》날조를 묵인비호한 미국의 교활한 책동은 조선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지배, 이를 묵인비호한 미국의 교활한 책동은 미일의 침략적본성과 함께 외세에게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뼈아프게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날에도 일본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는 《대동아포영연》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현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일본의 범죄적인 침략력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치욕의 력사는 되풀이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과거의 피값을 기어이 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종합식료공장

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공장에 각종 식료가공설, 종합조종설, 과학기술보급설, 문화후생시설 등이 그르하게 갖추어짐으로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압록강종합식료공장 개건

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종합식료공장에 필요한 발효기, 성형기 등 중요장비를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다.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10여개의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를 훨씬 늘이였으며 종합조종설을 새로 꾸려 생산공정들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고 흐름선화하였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



해외동포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애국애족의 자양분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잊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 이것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받아안은 고귀한 호칭이다. 세상에는 해외동포들이 많고 싶어도 공화국의 해외동포들처럼 이렇듯 뜨거운 혈연의 정이 넘쳐흐르는 호칭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첫아침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함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따듯이 불러주시었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수령과 조국을 옹위하고 총련조직을 사수하며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나가는 재일동포들이 받아안은 값높은 이 믿음.

함축의 그 세월 《침묵한 개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죽음의 유령이 배회하는 살인교역장에서 사람값에 들지 못하던 력사의 수난자들이 바로 재일동포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이역의 한식솔로 된 그들이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니 그들이 받아안은 감격은 이루 다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결어낸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꽃을 보듯 그들이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감격과 새로운 주제101(2012)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주시어 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사에 길이 남을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이 력사적인 첫 축전은 새로운 주제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령적 지침, 필승의 보검이었다.

동포사회는 뜨거운 감격의 파도로 설레었다.

이듬해인 주제102(2013)년 1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 보내주신 새해축전은 또 얼마나 동포들의 심금을 새치게 울리었던가.

나는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장관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총련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의 믿음을 받아안은 동포들의 가슴은 맹세로 높여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마다 총련에 뜻깊은 새해축전을 보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나 가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주제103(2014)년 5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해 5월 결성 60돐을 맞아 축하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4 차 전체대회 (2018년 5월)

맞는 총련에 강령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떠밀어주는 강력한 추동력, 애국애족의 자양분으로 되었다.

주제105(2016)년 4월에 총련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으며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나 축전을 보내주시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대해같은 사랑과 정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터워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세월의 언덕을 넘어 이역만리에 멀리 있어도, 기쁨 때에도 피

로울 때에도 따스하게 비추는 위대한 태양의 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과 재중동포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있다.



대양절을 뜻깊게 맞이한 재중동포들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제63회 졸업생들 (2021년 3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세인을 감동시켰다.

얼마나 많은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으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수훈자,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판에 받들어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의 력사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며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보살핌속에서 재일조선학생들이 해마다 평양의 설맞이공연무대에 오르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랑을 마음껏 노래부르고 조국에서의 수확여행과 실습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며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났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애국운동의 나팔수로 자랑떨쳐가는 총련과 재중동포예술인들을 대견하게 여기시어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도 세워주시고 값높은 명예칭호도 안겨주시며 보람찬 예술창조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총은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해외동포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따듯이 품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잘 알고있기에 해외동포들은 그들의 령도따라 변함없는 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언제나 남북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주제55(1966)년 여름이였다. 어느날 회의준비로 늦게까지 집무를 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절절히 고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전쟁때 서울에 나가보았는데 참 감회가 깊었다고, 전쟁이 나면 나는 그때 서울동포들에게 인사의 말도 한 번 못했다고 추억을 더듬으면서 고시하시었다.

이때 한 일군이 해방직후 서울사람들은 역전광장에 모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 갈리신 음성으로 그런 말을 나도 들었다고,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와 남북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세련된 성취예술, 찬란의 목소리 (2)

노래와 현실이 꼭갈다

주제109(2020)년 8월 공화국의 은파군 군당청사에서 어느때의 정숙한 분위기는 간웃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귀여운 목소리들이 흘러 나왔다.

군안의 크고작은 일들이 논의되는 이 청사에서 큰 물에 집을 났고 재난을 당한 인민들이 누구나 제 집이 온듯 편안한 모습으로 지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반면에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띄약별이 내려쬐이고 열풍이 휘몰아치는 야외의 천막으로 옮겨가 일하였다.



하느님의 하느님

주제109(2020)년 9월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로동당원들로 무어진 2개 사단규모의 골골한 대오가 큰물과 피해를 입은 지역들로 급파되었다.

침몰이 놀라운 이 현실을 TV로 보고 어느 한 인터넷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하느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쫓겨 망하고말았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굳게 믿었고 령도자는 하늘의 그 어떤 조화도 다스려 인민에게 훌륭한 새집, 새 마을을 안겨주었다. 조선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하느님의 하느님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정치리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더없이 귀중한 존재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고 위하려는것이 원수님의 진정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 내놓으시는 하나하나의 사상과 리론도 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데로 일관되고 지향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정치리념, 최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신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주제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을 수령님께서 장관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

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호소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관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관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장관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인민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시기에,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처럼 굳건하고 강렬하시기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을 더욱 숭고한 경지로 승화발전시키시는데있다.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축복이 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북남관계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지침

오늘 우리 겨레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대결적인 자세와 태도부터 변해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북남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시비중상하면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위치에 세워놓고 관계개선에 대해 논하자고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동족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고치는것이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서 선결적문제로서 나신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자주의 입장을 실천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바로 해결하자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는 남조선당국의 고질적인 외세의존과 사대적근성이 북남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런 북남관계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다 구걸하는것은 외세의존과 사대적근성의 발로이며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민족자주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주는 곧 애국과 애족,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시금석이기에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이 북남관계의 근본원칙이라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북남선언들을 무개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북남선언들을 무개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선포한 북남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업은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다.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자세는 곧 북남관계와 통일에 대한 립장과 자세이기도 하다. 북남선언들을 무개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할 때 북남관계가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힌 강령적지침, 불멸의 대강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자주의식을 지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사대주의, 외세의존사상과 결별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하게 된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때문이었다. 조국이 해방된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보수집권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아왔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사대주의, 외세의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북남관계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모든 문제지만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풀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말로써 배고진미치기대적근성의 발로로서 사실상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는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용감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외세는 오늘날도 북남사이에 대결을 부추기면서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고있다. 오늘 북남관계문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는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과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반대배격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적의식을 쫓는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리은성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남녘의 량심적인 목사와도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며

1980년대말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었다. 침략적인 외세는 반제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옹호고수해나가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데 공격의 예봉을 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남조선당국자들도 그에 적극 추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더욱 진면내세웠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갔으며 이것은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통일기운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문익환과 백기원을 비롯한 애국적민주인사들은 북남사이에 외세를 몰아내는 문제와 분렬을 청산하는 문제 그리고 북남 관계의 통일방안 등이 솔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나갔다. 문익환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89년 3월 25일 정일만을 무릅쓰고 유원호, 정경도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문익환목사일행의 평양방문을 애국애족의 장기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을 통일 의 사절로 뜨겁게 맞이하고 따스히 보살피주시였다. 3월 27일 문익환목사를 접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의 봉수교회당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익환목사 (왼쪽에서 네번째, 1989년)

가 그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주이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라고 말해온 문익환목사의 견해를 긍정해주시면서 반과좌반독재민주화, 반외세반침략자주화, 평화적통일이 셋이 하나이며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이 세가지를 실현하는것이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조국통일은 반드시 련방제방식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련방제국가는 철저히 통일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만큼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오는것을 환영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문익환목사는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련방제통일방안이 아주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일 또다시 문익환목사를 만나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밝혀주시였으며 그가 평양에 체류하는 기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 진행

얼마전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2021 제주평화음악회》가 진행되었다. 《평화, 마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음악회에서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공화국의 관련 악작품인데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기》가 관현악으로 연주되어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 진행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김원균평창 평양음악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제일동포 예술인의 장세남독주 《통강기》도 특유한 음색과 경쾌하고 박력있는 연주로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북의 관현악의 주요특징은 민족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성을 담아내고 대중성을 표현한것이다. 특색있는 민요가락을 협주곡형식의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문화적 특성을 살렸으며 이것

민족적존엄을 지키려는 의센 의지의 본질

조선의 의로운 청년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던 광주학생 사건이 있는 때로부터 92년이 된다. 1929년 10월말 광주-라주사이의 련차안에서 일본인중학생들이 한 조선학생을 회통하여 모욕적인사를 던진것이 계기로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은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청년학생들의 울분과 적개심의 폭발이었다.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일본중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일제경찰들의 만행에 격분한 광주지안의 전체 조선인학생들은 11월 3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대중적반일시위에 떨쳐나섰다. 광주학생들이 지켜낸 투쟁의 불길은 평양, 신의주, 함흥, 개성,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도처에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라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은 도처에서 일제경찰들을 맞받아 류혈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대량검거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이나 싸움을 계속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낸 자로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투쟁에는 전국각지 194개 학교의 6만여명 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광주학생

사건은 조선청년학생들과 우리 민족의 고통을 모르는 독립자주정신을 시위한 투쟁으로 력사에 남아있다. 그때로부터 90여년이라는 거나간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에 올린 광주학생들의 피라는 절규는 오늘도 이 땅 삼천리에 메아리 되어 일본의 침략범죄를 천백 배로 결산하고야말 우리 민족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있다. 오늘 피로 얼룩진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행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일본은 도쿄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빼앗아 자국령토처럼 표기해놓는 지도를 올려놓고 울림소개를 판물에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하였는가 하면 피대, 부산 등 전국도처에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라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었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은 도처에서 일제경찰들을 맞받아 류혈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대량검거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이나 싸움을 계속하였다. 일제가 줄여서 낸 자로에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투쟁에는 전국각지 194개 학교의 6만여명 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광주학생

강영진

한 여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1)

인생은 어떻게 빛나는가. 뜻이 높아서인가, 삶이 비범해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류영준 선생의 인생길을 더듬으며 찾고자 한다. 류영준 선생은 1890년 11월 평안남도 대동군의 어느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의 살림은 그를 열다섯살의 나이에 궁성 판비로 팔려가는 길로 떠밀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봉건왕조를 헐박하여 《을사5조약》을 남조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조선침략과 《한일합병》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조선봉건왕조의 멸망을 눈앞에

서 철폐하게 된 류영준 선생은 얼마 안있어 궁성에서 나와 191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에 있는 여자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여기에서 그는 고학으로 도쿄의학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 나날에 선생은 독립운동에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고 안창호선생의 흥사단에 입단하여 홍학회 회장으로까지 활동하였다. 도쿄의학전문학교를 마친 뒤 조국에 귀국한 류영준 선생은 1927년 5월 미국에서 귀국한 그리스도교계 여성운동의 핵심인물들과 함께 근우회를 맺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근우회가 해산된 후 독립운동이 저조

다. 조선의 정지도 살아있다. 김일성장군님만 믿으면 조선은 꼭 해방된다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던 리운형선생의 이야기가 힘을 얻고 다시 류영준선생님과병원을 개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죽치고계시니 꼭 조국이 해방될 날이 올것이라며 살아서 그날을 봐야 한다고 신심을 안겨주곤 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깨끗한 민족적량심과 애국의 넋을 지니고 반동들의 책동에도 굴함없이 자기의 지조를 지키었다. 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끝에 선생은 공산당사람들

과 손을 잡고 싸워 보려고도 하였지만 그리스도교를 믿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에 참가한 리운형은 배척당하고 말았다. 선생은 오랜 고민 끝에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하지만 신민당이 3당합동문제가 제기되자 자기의 사명을 위장장으로 활동하였다. 선생의 몸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에게 있어 깊은 관심을 가지 고계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리운형과

활동하였다. 그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긴 외세와 민족반역자들은 부당한 이유를 내걸고 그를 탄핵하여 체포구금하였다. 선생을 모해하려는 놈들의 모략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습해졌다. 놈들은 류영준선생과 같은 경력이 복잡한 녀자가 어떻게 녀명위원장임을 할수 있는가고 여론을 퍼뜨리면서 그가 차지한 공직에서 스스로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과연 이 어지러운 남조선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류영준 선생의 안락까운 이 심정을 터놓을 곳은 남녘 땅 그 어디에도 없었다.

본사기자



류영준선생

《당장 해체되어야 할 불법적인 유령기구》

지난 10월말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므로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공개되자 남조선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합동군사연습중단문제도 이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북의 《유엔군사령부》해체요구가 자연스럽게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결의가 통과되었고 당시 미국무장관도 해체를 공언하였으나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불법적으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고 그 순간부터 해체주장이 대세를 이룰것이라

고 주장하고있다고 한다. 사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해체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된 근거가 아니라 조선전쟁당시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대에 지나지 않으며 정전협정서명당사자라는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사 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다. 유엔의 기구처럼 행세해 온 유엔군사령부는 오래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1975년 제30차유엔총회에서 해체결의가 통과되었다》고 폭로한것이 이를 증명한다.

남조선언론 《뉴스 1》 역시 《실제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기구를 내걸고 활동하고있지만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부르스 갈리, 코피안 등 역대 유엔사무총장들도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힌적이 있

다. 특히 현 캐나다특근참모총장은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있던 당시 미국이 결단하면 유엔사를 해체할수 있다고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정계에서도 《유엔사는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 의 장애물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통일문제전문가 역시 《주한미군은 이미 북전제목적이지 않고 중국적으로 조선반도주변국경제라는 목표를 가지고있다. 유엔사는 사실상 유령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에 의해 조직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며 당장 해체되어야 할것이라는 각계의 주장과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남조선에서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조직된 날을 맞으며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고 한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기념식》에서 《한미연합군은 잘 준비된 연합전력》, 《확고한 대비태세》 등의 소리가 나갔다고 한다. 침략적이며 예측적인 남조선미국 《동맹》관계를 미화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감싸기 위한 상전과 주구들의 추악한 광대놀이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의 조직은 미군의 남조선에 대한 영구장점과 반공화국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공모결탁의 산물이었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공안정화를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군부력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데 대한 내외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은 1978년 11월 7일 남조선강점 미군을 그대로 둘수 있는 《연합군사령부》를 조직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보수 《정권》도 상전의 대조선전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저들의 동족대결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망상으로 《연합군사령부》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나섰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진도발을 위한 현지 지휘기구, 범죄적인

침략기구이다. 미국은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에 군사적 종속체제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고 조선반도에서의 북침전진도발책동을 강화하여 왔다. 위험천만한 침략기구를 통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영구화하고 남조선에 새 전진도발의 전초기지로,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교두보로 리용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는 남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영구히 틀어쥐려는 미국의 책동도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기념식》 전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떠들어댄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전부터 미군부내에서 《반환시절》, 《결정조건》 등의 구실을 내대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까다롭고 어려운 걸 중간계를 설정해놓고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상전의 요구에 굴복하여 막대한 금액을 랑징하면서 남조선에 미국의 무기시찰장, 무기판매전시장으로 내맡기고있다. 그들의 비굴한 처사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에서 실질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책동이다. 남조선전진자들이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떠들어대고 미국은 남조선에 한갖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력사와 현실이 그것을 푹 푹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에서 《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4일에도 시민사회단체인 《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청사앞에서 《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시위투쟁을 벌였다.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위투쟁에는 앞으로 《보안법》 피해자들과 종교, 문화, 학계 등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에서 《보안법》 피해자증언 및 피해사태 청취회, 《보안법폐지를 위한 전사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림도도 피고나 지나 략업이 흘날리는 한산한 계절이다. 향방없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뉘는 락업들은 요즘 미국으로 등지를 옮긴다고 설치는 《탈북자》 쓰레기들을 련상시킨다. 배라살포를 비롯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앞장섰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노제인》과 같은 《탈북자》 폐거리들이 남조선에서도 발붙이기 힘들어 대양건너에 거점을 옮긴다는 것이다. 인간쓰레기들에게 차려진 비참한 운명이다. 《탈북자》 것들이 한 짓거리란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품을 배신하고 달아나서도 외세와 동족대결세력의 수족, 어용나팔수가 되어 악담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대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린것밖에 더 있는가. 공화국을 자국하는 《가짜뉴스》들로 장식된 배라와 USB 등을 날려보내는것으로 돈벌이나 하고 분계연선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킨것으로 하여 남조선주민들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락업은 멀어져도 자기를 품어준 대지에 떨어지고 새 생명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 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다 못해 대양건너에 쫓겨가면서도 동족을 향해 계속 짓어대겠다고 하는 《탈북자》 쓰레기들은 락업만도 못한 인간추물, 쓰레기들이 분명하다.

김정혁

그런 인간오물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돈을 뿌리며 양육하다 못해 이제는 제 땅, 제 민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인간오물들을 덤싱 받아안겠다고 하니 미국이라는 덩치 큰 나라를 온갖 쉬파리떼 모여드는 거대한 오물장이 분명하다. 미국의 속심은 뻔하다. 말을 잘 듣는 사냥개나 저들의 세부령말을 골찰 흥내내는 영부새를 키우듯 풀진이나 던져주는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재활용해보자는 것이다. 집안의 쓰레기는 오물장에 내버리는것이 응당하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라는 인간오작품, 인간오물들을 쓸어내린다면 남조선인민들도 맘이 좀 편해질것이고 민족내부도 한결 깨끗해질것이다.

김정혁

단 상 락업이 주는 생각

사람들이 주는 생각은... (text continues in columns)

《력대급예산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상남도본부가 《정부의 국방예산중액, 무기증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소식을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단체는 현 《정부》가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 277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2017년 40조원에서 36.9%가 증가한 《력대급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거리탄도탄요격무기

정밀타격무기, 스텔스전투기, 중형잠수함, 특수작전대형직승기 등 북을 향한 공격적인 무기체계도입계획도 계속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5년간 국방예산증가율은 약 6.5%로 력대 어느 《정부》보다 무기증강에 몰두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역적당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그렇게도 인물이 없었는가?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났다고 한다. 무조건 자기가 당선될것이라고 교대를 세우던 홍준표와 류승민, 원희룡은 머쓱해져서 침통한 얼굴로 자기들의 선거조치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가관은 윤석열이 당장 권력을 손에 쥐기라도 한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정권심판》의 흰소리를 뿜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법》에 충실하겠다고,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와 리명박을 석방하겠다고, 《이런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등으로... 그런걸 보고 속내에 오른 민중의 의뢰수설이라고 하던지.

기를 속했다고 문화계인물들에 대한 척결명단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박근혜가 아니던가. 그러나 박근혜, 리명박처럼 정치적반대세력에 대한 척결소동을 벌였다는 수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살인악당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윤석열이고 보면 그가 망상하는 정치나 《국민통합》이 전두환의 살인통치와 독재통치를 닮은 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뻔하다.

—《부패와의 전쟁》?—

가마가 술을 보고 겁동아했다던지... 본인은 물론이고 아버지, 처, 장모 등의 부패의혹을 벗지 못해 《부패당어리》로 불리우는 윤석열이 《부패와의 전쟁》을 운운하니 삶은 소 웃다 꾸레미터질 만담이 아니겠는가.

원체 윤석열이 정계에 나서자마자 《역법》, 《도리도리》, 《왕자세김》을 하면서 《부정직책 면을 자유》, 《주당 120시간노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와 같이 등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할 때부터 뭇가지만담구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회비국적인 연기를 한적은 없었다고 본다.

최은정

보느바와 같이 안팎으로 부패한 윤석열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것이야말로 썩은 풍양을 심고 사과가 주렁지게 할수 있다는 께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민심, 특히 중도층과 청년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별의별 《공약》을 제조해내지만 그 또한 꾀이 들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남조선정계가 윤석열을 두고 《정치적결의 선전포고》, 《최악의 후보》,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검찰독재를 초래할 후보》로 락인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저마다 권력을 차지해보겠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개싸움질을 벌리는 《국민의힘》의 망동, 망언을 보면서 청년들은 점차 이 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

—《법》에 충실?—

검찰총장이라는 전직관념이 되살아나는 모양이다. 남조선에서 정치인들치고 《법》에 충실하지 않겠다는 인물은 하나도 없지만 《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사람 또한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소리를 하고있으니 남조선인심은 《검찰공화국》의 제왕노릇을 하던 이전 시기를 떠올린 말이 아닌가고 하면서 윤석열이 《검찰공화국+대통령》이라는 《검통령》이 될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리명박 석방》?—

《국민통합》에 대해 요란히 떠든것이 이전 보수 《정권》들이었지만 《중북척결》을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을 《적, 아》의 《이러법》으로 갈라놓은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리명박집권시기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한다고 《중북》으로 락인한 시민사회단체만도 1 850개에 달하였고 자

가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을 총괄하려고 전권을 넘겨받으려 한다는 설도 나돌았던것이다. 당대표와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있는 인물들을 향해 《덕》을 보여 모으는 《파리떼》, 《헤어나》, 《거간군》, 《자리사냥군》으로 비하하는것으로 하여 《국민의힘》내부의 불협화음이 더 커질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평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국민의힘》의 《대선》마차가 어디까지 제대로 굴러가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세와 공명, 권력욕에 환장한 정치간상배들로 들어찬 그속에서 패거리싸움의 악형은 그칠새 없으리라 는것이 남조선인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응당한 대적》

만평: 윤두환(윤석열+전두환) 물러가라!

광주

《대통령》 후보경선싸움을 일단락 지은 《국민의힘》이 그 후유증을 가질 사이없이 새로운 불협화음을 터뜨리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있다고 한다. 우선 윤석열에게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의 탈당문제인데 그중 대다수가 청년들이라고 한다. 그 무슨 《쇄신》과 《변화》의 간판밑에 30대청년을 당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이 일정한 환상을 가진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입당을 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저저마다 권력을 차지해보겠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개싸움질을 벌리는 《국민의힘》의 망동, 망언을 보면서 청년들은 점차 이 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

출발부터 삐걱대는 《대선》마차

특히 윤석열의 선거조직에 구대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뉘려려고 청년들을 위한 변변한 《공약》 하나 내놓은것이 없는 윤석열의 태도는 젊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실망이 아닐수 없었다고 한다. 하기에 탈당하는 청년들은 《《국민의힘》은 로인의 힘》, 《윤석열의 승리는 구대의 승리》라고 비난하면서 매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이 후퇴하게 만들겠다고 버르고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에는 《국민의힘》을 더이상 지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보수당에 리용만 당하였다 하면서 탈당신고서와 집단탈당을 부추기는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 보수당을 당황망조하게 하였다. 더우기 젊은 층의 탈당을 두고 《위장당원들의 통간질》, 《역선택의 증거》라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는 윤석열측의 처사는 보수당내부에서 젊은층탈당사태를 더욱 부추기고있다. 오죽하면 당대표까지 《그렇게 젊은 층을 조롱해서 얻고저 하는 정치적리득은 무언인가》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는가. 한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을 놓고서도 당대표와 윤석열과의 마찰이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자기를 내세워준 경선대의 선거조직에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것이 당대표는 그 조직을 해체하고 전면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햇비둘기가 재를 못밟는다는것이 윤석열의 속심이고 늙은 당나귀가 길을 안다는 속담대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고견》을 따르겠다는것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견이다. 그도 그렇듯이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늙은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광주시민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의 못매를 맞았다고 한다. 응당한 대접이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으로 광주시민들뿐 아니라 온 남침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윤석열이 뻔뻔스럽게 광주에 갔었다고 한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이왕지사 찾아간다면은 광

주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진짜 사죄이고 진심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윤석열은 시민들이 막아섰다고 하여 5.18민주묘지에서 50m나 떨어진 곳에서 머리를 한번 까딱하고 사과를 한다는 말 몇마디 벨아놓고는 돌아섰다는 것이다.

살인마에 대한 찬양망언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고 광주행은 사과질이 아니라 나도 사과쯤은 한다는 식의 보

인민앞에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살인마를 찬양한 윤석열의 지난 망언이나 이번 광주에서의 망동은 5.18광주영령들에 대한 모독이고 광주주시민들의 아물지 않는 상처를 해치고 소금을 뿌린것이나 다름없다.

정의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의 운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력사에 명백히 기록되어있다. 윤석열의 종말도 편치 않으리라 는것은 남조선인심이 락인한 오명에 비껴있다. 《윤두환》.

본사기자 김광혁

못매맞은 《윤두환》

죽은 자들의 자랑

하나의 대가정

《가정이 해체되고있다》

공화국에서 가정들은 언제나 화목과 활기에 넘쳐있으며 가정들의 고상한 문리도덕은 사회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 이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며 사는 문리도덕으로 승화되고있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을 잘 알게 하여주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즐겁다
손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가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1960년대에 나온 명곡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구절들이다. 노래가 나오는 반세기라는 세월이 넘었지만 오늘날도 자기의 예술적감각력을 충실히 발휘하며 공화국의 어디서나 울리고있다. 누구나 들으면 눈곱이 찌뚱이 젖어주고 화목한 대가정의 시련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짝 메여온다.
이 노래의 구절구절과 더불어 한없는 긍지와 넘치는 행복감을 소리높이 구가하던 그 시절도 삼삼하다 어려온다. 해빛같은 강산, 웃음이 그칠새 없는 인민의 락진, 장대제언덕에 높이 솟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재능의 나라를 활짝 꽃피우던 날들, 대학의 교정에서 탐구의 날바다를

헤쳐가던 날들, 지칠줄 모르고 벅찬 창조의 밤을 지새우던 날들, 풍년든 협동벌에서 팽파리소리 울리며 상모춤을 신나게 추던 날들... 누구나 세상에 부럼없는 날을 보내던 잊지 못할 시절이었다.
공화국에 펼쳐진 대가정의 아름다운 화목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다.
수십성상 실천공을 맞오시며 피어던 투쟁으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제도를 이루고 천지를 격동시켰다. 정이 많은 어머니의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평범한 녀성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피고, 피도 서슴지 않고 주는 것이 어머니이고 자식이 잘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이 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다.
정녕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거느린 대가정의 어머니만이 쓰실수 있는 감동의 친필이다.
하기에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글에 《런인들의 사랑조차 무색할 지런 관계를 어떻게 령도자와 백성이 맺을수 있을까.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도 인간본래가 살아있고 청순한 인성으로 보살핌과 나눔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미덕으로 자리잡은 사회, 령도자와 인민이 부모와 아들딸의 관계를 맺고 받들며 사랑하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인류최초의 리상사회가 바로 북이다.》라고 서술하였던 것이다.
지구인연과도 같은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관계, 이렇게 맺어진 하나의 대가정은 핵폭탄으로도 깨지 못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 이 명언처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모든 일이 다 잘되어나가고있다.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슬하의 지식처럼 령도자를 받들면서 뚝쳐 서로 정과 뜻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의 대가정, 정녕 이는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인민들이 참된 삶과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공화국의 훌륭한 령도자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한집안식솔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구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김영호

가정이라고 할 때 이는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세포를 말한다.
가정은 피와 살을 나눈 부모들과 자식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이 아늑한 공간에는 증오도 다툼도 숨길것도 없다. 즉 인간의 정신과 심신이 가장 안정되고 편한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다.
하나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지구상 곳곳에서 매일 매 시각 보고 듣고 느끼고있다.
가정이 해체되고있는 것이 세계의 현실인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젊은 부부가 태어난지 두주밖에 안된 아들이 자주 울고 먹은 우유를 토한다고 하여 마구 매려 죽게 하는 경악할 사건이 일어났다.
아들이 술을 먹지 말라

고 꾸짖는다는 리유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한 대학생이 처녀와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리유로 할아버지를 수심범이나 흉기로 찔러죽였으며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안해를 죽이는 끔찍한 참변들도 일어났고있다.
혈육들사이에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가정이란 곳이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곳으로 변해가는 현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
본사기자 황금숙



가정 폭력 희생자 및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가정 폭력) 9월 9일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참모습 (2019년 촬영)

외국과 비교

《듣던 것과 너무도 다르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해외 동포들이 조국의 각지를 돌아보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듣던 것과 너무도 다르다.》, 《서방세계의 보도는 온통 거짓말투성이다.》
《하루이면 그들이 본 공화국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자.》
《조국방문기간에 받은 인상은 평양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날이 변모되어가고있는 것이다. 초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서고 특화가 잘된 거리와 깨끗한 공원을, 활기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과거기술진단과 평양산원, 인민극장과 동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세상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문화시설들의 리용자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북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나라, 실업자가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공화국밖에 없을 것이다.》 ...
몇해전 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재미동포 리경실은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값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나라에서 돈 많은자들이나 둘수 있는 주치의사를 평범한 사람들이 무료로 두고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북은 예뵤동산 그자체라고 말했다.
세상의 멋진 야영소들을 다 다녀보았다는 재미동포 한향우도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고나서 다른 나라 같으면 특권층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생각지도 못할 훌륭한 야영소에 평범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가고있는 사실에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오랜 세월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아이들의 리상향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서방의 외곡된 선전만 들 어오다가 직접 조건의 현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네덜란드에서 사는 한 해외동포부부는 《지금껏 리론보도사지에서 북조선사람이 웃고있는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이번엔 와보

고나서 서방에 의해 《악마화》된 북의 모습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세상사람들에게 이 행성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다. 대동강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과 웃음년친 아이들의 청진란만한 모습,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등을 목격한 해외동포들은 북은 진정한 행복한 인민의 나라라고 한결 같이 격찬하였다.
해외동포들이 보고 격찬한 공화국의 참다운 모습은 진실은 그 누가 외곡한다고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세금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1)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은 세금을 내고있는가?
세무국의 직원도 아니고 한달수입의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치는 내가 새삼스레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데는 사연이 있다. 한것은 어느날 우연히 인터넷검정전문웹사이트에 《세금 없는 나라》를 입력하자 뜻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았었다.
세금없는 나라도 있다니? 서방의 표현으로 북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수십년간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속에 생존하는 특수한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를 리해하는 과정에 알게 된 놀라운 많은 사실들이 나에게 준 커다란 감동이 이 글을 쓴 계기가 되었다.
과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필사의 노력 끝에 간헐된 웃지 못할 이야기 등이 그려진다.
착취사회의 어느 시기에나 통치배들은 백성들에게 하나와 같은 문리를 주입시켜왔다.
그것은 세금을 왕(국가)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내질서를 유지하며 《태평》을 보장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그(국가)에게 바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백성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 종사하는 《기계》였고 각종 명목밑에 가중되는 세금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였다.
우선 아이도 그치게 하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전해온 것으로 그 래서였다.
현대에 와서도 세금은 연약한 백성들의 등허리를 부딪게 짓누르며 죽음과 함께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되고 있다.
북과 이당은 남쪽의 경우만 놓고보자.
남쪽의 세금정책은 수십년간 민중을 괴롭혀왔다. 특히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의 집권기간에 만들어진 《세금법 개정안》으로 해서 온갖 불평등한 세금정책들이 람용되고 《세금폭탄》들이 편이러져서 민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
통계에 의하면 그때 남쪽 당국이 한기정으로부터 별

공화국에서 장학금이라는 말은 흔히 들을수 있어도 등록금, 학비라는 말은 들을래야 들을수가 없다.
그것은 모든 대학들에서 등록금, 학비가 없이 무료로 공부시키고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등록금이 학비 때문에 매해 퇴학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마련을 위해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를 비롯한 여기저기서 품팔이로동을 하고 지어 의학생체실험대상으로 자기 몸을 바치는 기막힌 광경도 펼쳐지고있다.
등록금과 학비 때문에 고

독자문답

공화국에서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있는가?

등을 겪는 자본주의사회의 대학생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조건속에서 공부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인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몇가지 사실을 놓고 고서도 잘 알수 있다.
우선 대학에 다니는 전기간 대학생들은 교사와 기숙사 등 교육건물과 실험실습

실비들, 전기, 물, 난방을 무료로 리용할뿐 아니라 도서관도 무료로 리용한다.
수영장, 체육관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로 리용하며 교내의 상점, 편의봉사시설들을 녹은 값으로 리용한다.
기숙사생원들 경우 식비를 매우 낮은 값으로 지불하고있다.

대학생들은 또한 교복, 신발, 학용품을 녹은 값으로 공급받는다.
국가는 대학생들이 리용하는 버스운행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방학기간에도 식량을 공급해주고있다.
이밖에도 답사기간 봉사료는 녹은 값으로 지불하며 실습기간 련차운행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공화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근로자들은 하루 6시간 로동을 한다.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대학생들은 학습의 전기간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무료로 봉사받고있다.
교원양성부문대학 학생들은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매일 장학금을 더 지불받는다.
이밖에도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전기간에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껏 배우고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자료를 파고들수록 많은것을 깨달았다. 수천년전부터 존재하는 세금이었지만 그것이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고통과 부담에 대한 말 지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내고 뼈를 깎아내는 것이라고 욕하는 소리뿐이었다.
가혹한 세금수탈의 령사가 남긴 일화는 참으로 많았다. 고대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의 하나였던 스파르타가 올림픽경기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 일생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준 일,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이 15세기말 오스만제국이 들죄운 막중한

사진으로 보는 현실



최근 공화국에서 국가의 시책으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진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들과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사람들의 행복년친 모습들이다.



본사기자 흥범식

민족의 명산 (5)



구월산은 그 경치가 천하절경이다. 해발고 954m인 여러 화강암봉우리...

구월산에 오르면 서해가 한눈에 안겨오고 아사봉의 수려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홀경에 빠져든다.

단군이 살았다는 장담경과 환인, 환웅, 단군을 보셨다는 삼성사, 단군이 활쏘는 장소로 리용했다는 사궁석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구월산에서 제일 높은 산봉봉에는 황해도 5대산성의 하나로 이름난 둘레 5230m에 달하는 구월산성의 옛터가 있으며 고려시기 유명한 청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2종아시아마라손선수권보유자 김혜경

2015년 공화국의 김혜경 선수는 제15차 아시아마라손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제16차 아시아마라손 선수권대회 준비기간에 육체적능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자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갔다.

그는 2종아시아마라손선수권보유자이다. 본사기자

다양한 천연향료제품들

공화국의 평양향료공장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나라에 흔한 원료로 질 좋은 천연향료를 생산하기 위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향료식물 선진으로부터 천연향료의 추출, 정제 등 모든 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천연향

료개발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연구사들이 개발한 인삼치약향, 유허복숭아향, 조미료용후추향, 음료용수박향과 껌용참외향, 꿀향 등 여러가지 향료제품들은 식료품과 기호품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의 식생활향상과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연구사들은 국내원료를 리용하여 공업향료들을 국산화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비누용꿀꿀향과 측백향, 장미향 등 질 좋은 공업향료들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본사기자



이러한 행동은 피부부수촉진기인 수축시켜 탐구명을 막아줌으로써 체온조절기능을 비롯한 생리적기능들을 약화시키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 설사,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킬수 있는 요인으로 된다. 본사기자

기리차(기리교차)는 수레가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수레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종과 북이 울리게 되어있는 기리차는 1441년 3월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기리차의 구조를 보면 둘레가 1m인 한자(한자)는 0.303m)는 바퀴에 3개의 회전치차들

새책소개 《민심의 목소리》

평양출판사에서 소책자 《민심의 목소리》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소책자에서는 사대와 외세의존, 전쟁을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즐기게 벌어지는 각계층의 투쟁을 소개하면서 분열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일을 앞당기는 길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소제목에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은 력대 남조선보수세력의 체질화된 본태이고 고질화된 악습, 유일한 생존방식이며

이 차레로 련결되어있는데 이 차차들은 첫 차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후세의 학자인 홍대용은 기리차의 측정정확도에 대하여 《출자로 잘 때 생기는 풀의 차는 늘 생기므로 세밀히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레축량의 정확도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사화

《쇠도리깨다!》 (7)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노술이와 일행은 첫 새벽부터 날이 어두워 나무가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새로운 쇠도리깨부대의 출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 의병장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 힘든 정황을 제시하면서 맹훈련을 지휘하였다. 그가 없을 때에는 노술이가 그를 대신하였다. 노술이의 안내 무던이와 마을사람들은 이들에게 막걸리를 떨지 않으려고 여러가지로 원심을 썼다. 황해도 농부들치고 막걸리를 즐기는 까닭에 싸움꾼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는 데 기여가 큰 음주였다. 그래서 의병장은 전투에 진입할 때마다 의병들에 대한 막걸리공급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태어난 판철쇠도리깨는 싸움을 치르는 과정에서 결함없이 시정되면서 기본전술인 기습전술마다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한번, 두번 격전을 벌일 때마다 의병들의 쇠도리깨썰미는 눈에 띄이게 자라났다. 끝내는 가로후려치기를 포함하여 그것을 나무도리깨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어내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했다. 이러한 발전은 그들 모두의 피와 노력과 아울러 농부들로서 도리깨명수들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하여 거의 모든 싸움마당에서 종횡무진으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쇠도리깨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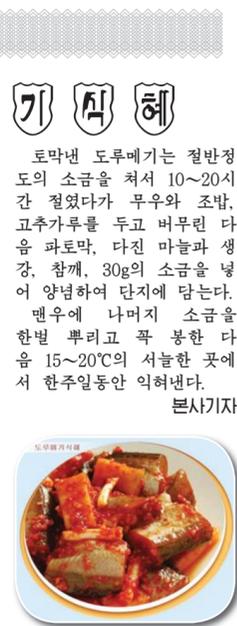
이 차레로 련결되어있는데 이 차차들은 첫 차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후세의 학자인 홍대용은 기리차의 측정정확도에 대하여 《출자로 잘 때 생기는 풀의 차는 늘 생기므로 세밀히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레축량의 정확도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이 차레로 련결되어있는데 이 차차들은 첫 차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후세의 학자인 홍대용은 기리차의 측정정확도에 대하여 《출자로 잘 때 생기는 풀의 차는 늘 생기므로 세밀히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레축량의 정확도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이 차레로 련결되어있는데 이 차차들은 첫 차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후세의 학자인 홍대용은 기리차의 측정정확도에 대하여 《출자로 잘 때 생기는 풀의 차는 늘 생기므로 세밀히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레축량의 정확도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민족소리 도루메기식혜

도루메기식혜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피로를 인자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루메기 2kg, 물 50g, 마늘 20g, 생강 5g, 고추가루 80g, 참깨 10g, 소금 200g을 준비한다.



속담과 뜻
◆ 김치국 먹고 수염 쓴다
◆ 김치국부터 마신다
◆ 김치가 반량식
◆ 김치가 반량식